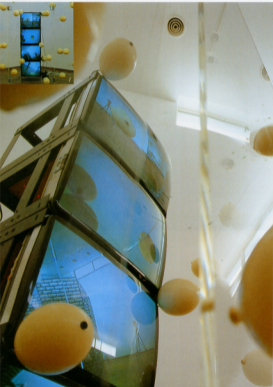


SUH, HAI YOUNG 밀실에의 욕망

Gallery IHN, 2000.1.19 ~ 1.28



서해영이 오브제와 설치작품으로 두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3년전 개인전에서 보여준 '연꽃 오브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비디오, 파포탈, 촬영수거를 주 소스로 사용하여 방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해영의 '방'은 현대 미디어 문화의 인식론적 기표이자 그전에 거지하는 중세의 실리카 페이로다 작용한다. 방 방을 통해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미디어적 과정 속에서 방은 더 이상 자기만의 방을, 그 은밀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보의 공유와 함께 방은 공개화되지만 그전수목 현대인의 밀실에 대한 욕망은 극대화된다. 방의 광장화와 그에 따른 밀실에의 갖춰진 욕구, 이것이 바로 서해영이 개념화 시키고자하는 방의 실재된 것으로 여겨진다.

『4개의 방 - 방장(Four rooms - forum)』은 푸른 아크릴 판으로 둘러싸인 4개의 코너에서 반도의 밀실이자 방장으로서 방이다. 수직으로 흘러다니는 4개의 코너가 각각 전시장 내부의 다른 장면들을 리얼타임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크릴 벽을 설치하고 있는 30여개의 파포탈을 가운데 4개가 내부에 '플래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있어 방장을 공개하는 것이다. 관객은 자신의 이미지를 이 코너에 또는 저 코너에서 순차적으로 발견하게된다. 여기서 아크릴 방은 전시장 속의 방, 즉 방 속의 방인데 내부 코너를 통해 외부 전시장 장면도 그 내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부가 내부로 침투하여 내부를 이루고 그 내부가 외부로 관통하면서 안에서 방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밀실이 노출, 광장화된다.

서해영은 '연노출(Unknown)'이라는 비디오 설치 작품에서도 플래카메라의 메카니즘을 활용, 3개의 코너를 통해 전시장 장면을 항상 공개하고 있다. 이 3개의 코너는 내부피피오와 전신을 위한 드러냄 체계 아크릴 케이스 속에 안치되

어 있다. 그녀는 코너가 내부피피오 하드웨어까지 노출시킴으로써 미디어에 의한 사적 영역의 공유와 현상을 실재화, 공개하는 것이다.

밀실 - 광장의 이주는 '광장 - 4개의 방(Forum - four rooms)'이라는 구조를 설치 작품에서 재차 강조된다. 그녀는 수직로 반투명의 벽들을 만들어 벽달 프로젝터를 한 후 그것으로 4개의 방을 만들었다. 두 종류의 수직, 경화체, 세 가지 축전체를 비출을 달리해 계층한 커널에 벽들의 색과 투명도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반투명체로서 외부와 내부를 관통시키고 있다. 이 4개의 방은 각각 구획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구조물을 통합하고 있는데,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된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각기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에 의해 누구나 연결되는, 즉 밀실을 광장화하는 일대일 문화를 존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 지구화하는 이를 위해 밀실을 광장화시키고 사의 취미를 확립시키는 인터넷 문화 또는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부와 세스인 방, 저 해방은 원초적인 파포탈을 방의 원형으로 등장시킨다. 전술해왔듯이 그녀는 『4개의 방 - 광장』의 아날로그적인 파포탈 30여개를 일일이 부착하였다. 각각의 파포탈들은 그 자체가 독립된 방들이며 서서적이 광장화되기 이전의 전(前)문명적인 밀실의 방을 유추시키는 듯하다. 방은 광장이 거지하는 최초의 방이자 그 속에서 광로의 전계가 이루어지는 밀실의 원형이다. 광장적인 투명한 아크릴방과는 대조적으로 이 파포탈 밀실은 어둡고 커튼으로 덮여져 있다. 그러나 이 파포탈 역시 한 칸씩은 투명하고 은은 구멍을 갖고 있다. 파포탈 회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관 한 쪽에 구멍을 내고 속을 빼내어 방이 때문이다. 관객은 그 구멍을 통해 파포탈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방 공간을 구형된 파포탈을 통해서도 다른 파포탈의 구멍을 엿볼 수 있다. 파포탈 밀실 역시 관객의 관음충족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광문화, 광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파포탈이 작가의 밀실에 대한 갈수와 욕망의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다. 그것은 그녀가 파포탈을 구획화시키는 일련의 오브제 작업에서 예시라 드러난다. 파포탈 뒷부분 꼭지점에 코어 전등을 달고 회로에는 신적 무의미까지를 실스크린하여 선한 위에 준일한 '인더(Lihar)', 회로에 코어전구들을 장착하여 파포탈을 유시방장체로 만든 후 그것을 스텐달로 만들어서 반투명의 입방체 안에 안치시킨 '저장정원(Roof Garden)', 등이 그 예중이듯이. 그녀는 파포탈을 장식하고 축원하는 세시적 행위들을 통하여 광장화된 문명의 방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어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해영은 3년전 첫 개인전에서 연꽃 연작을 발표하였다. 최요삼에서 관음되는 빠르 실러온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수직로 피서 제작한 직주, 길비레, 화염벽, 발가벽, 손기벽 등 6편의 연꽃 무리들이었다. 오브제화된 연꽃들에서 인간의 모습을 자신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이번에 파포탈 연작을 통해 밀실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어질적 귀소본능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소재와 주제에서 1회 개인전 작업과 코너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그 논리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다. 전자가 내부벽적 '신적 오브제'란 후자는 사해학적 '실리카 페이로다' 서해영의 작업은 결국 인간 선체의 실재를 탐구하는 것이다. 파포탈 회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관 한 쪽에 구멍을 내고 속을 빼내어 방이 때문이다. 관객은 그 구멍을 통해 파포탈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1, 2. Four rooms - Forum, 200×180×100cm 3D-Work, COPPER, 400Watt LED등 3. Under, 105×150×28cm, 스텐, 아날로그 스텐, 파포탈, 전구, 실리카페인 4, 5. Forum - four rooms, 3, 7×214×240cm, 불 화염벽, 수직 6. Roof garden, 각 18×88×18cm, 아크릴 스텐, 파포탈, 전구